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마산시를 중심으로

하 춘 광
(경남대학교)

김 효 순*
(세종사이버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지 5년 이내인 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여성 노인 8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동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4개월간에 걸친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지오르기(Giorgi) 방식으로 범주화를 시도한 결과, 저소득 여성노인이 주거를 옮기며 겪는 경험을 관계적 차원,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등 세 개의 핵심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약화된 부양의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든든한 자녀에게 의지함, 집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 맺기(관계적 차원), 경제적 갈등: 잃어버린 희망(경제적 차원), 저렴한 주거 비용과 물가 및 복지서비스접근성,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환경적 차원) 등 총 7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핵심범주들로 묶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추후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용어: 저소득 여성노인, 거주이동 경험, 질적 연구

* 교신저자: 김효순, 세종사이버대학교(neri9657@sjcu.ac.kr)

■ 투고일: 2014.4.30 ■ 수정일: 2014.6.16 ■ 게재확정일: 2014.6.27

I. 서론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착지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일정한 물리적 개념이 내포되어 이동(mobility) 또는 이주(migration)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거주이동은 그 자체로서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거주이동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 이동을 통해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또는 성인의 직장이라는 물리적 환경까지 일순간에 바뀌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총인구의 지역 간 이동자수는 2003년에 950만, 2010년에 820만, 2013년에 740만이었으며, 같은 시기의 주거이동률은 19.7%, 16.5%, 14.7%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주거이동률은 2003년에 11.9%, 2010년에 9.2%, 2013년에 8.3%로, 약 8%를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발맞추어 노인의 거주이동에 관해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져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였다(강희경·유병선, 2011; 민주홍·한경혜, 2007; 서승희·이경희, 1996).

외국의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이동이 노인에게 주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일관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ogan, Reed & Palmer, 1997; Oishi, 2010; Wells & McDonald, 1981).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것은 그동안 친숙한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야하고, 새로운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기능이 쇠퇴하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의 주거이동은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의 적응이 용이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률의 증가, 건강악화, 의기소침, 우울 등의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서승희·이경희, 1996; Burkhaue & Butrica, 1995; Clar & David, 1990).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승희·이경희(1996)의 연구는 분당과 일산에 입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이동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관계, 심리적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노인의 거주이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노인의 심리적 우울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산과 분당이라는 쾌적하고 편리한 신도시에 입주한 중산층 노인들을 연구참여자로 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강희경·유병선(2011)은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노인이 주거이동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주거이동을 한 노인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인의 주거이동의 원인이나 경험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홍과 한경혜(2007)의 연구는 거주지 이동 전후로 나타나는 사회관계망의 변화와 현 거주지에서의 사회관계망 획득유형을 살펴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노인이 이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저소득 여성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나 저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주거이동은 노인의 성별과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민주홍·한경혜, 2001; 서승희·이경희, 1996; Clark & Davis, 1990; Fokkema & Gerveld, 1999; Mogan & Palmer, 1997)에 주목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자신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이동 후 더욱 쉽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진다고 보고되기 때문이다(George, 1980; Watson, 1980).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노인빈곤이 여성노인에게서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 중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비율은 2009년 16.3%대 34.0%, 2012년 19.1%대 36.5%로 남성노인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노인여성의 빈곤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012). 둘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이주율을 비교해보면, 2004년에 33.9%대 66.1%, 2009년에 35.2%대 64.8%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거의 두 배 높은 주거이동 모습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렇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빈곤율과 거주지 이주율을 상호 비교해보면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이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노인의 평균수명(83세)이 남성노인(76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2년). 게다가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내야하는 기간이 20.5년으로 남성노인의 경우보다 2배가량 긴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12), 여성노인들은 배우자와의 사별 후 빈곤과 주거이동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빈곤하면서 여성인 노인의 거주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거주이동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주이동(residential mobility)이란 국내이동의 한 유형으로, 같은 근린집단이나 같은 읍내에서 이동, 대도시의 중심에서 그 주변으로 이동하는 것 등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 노인의 거주이동 경험이란 여성 노인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경험을 뜻한다.

빈곤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이동 경험을 살펴본다는 것은 증가하는 저소득 여성 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여성 노인의 거주이동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지오르기(Giorgi)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빈곤 여성 노인을 통해, 노인의 거주지 이동을 발생시키는 동기를 비롯하여 거주지 이전이 가지는 의미를 생생하고 의미 있게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이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갈등상황은 어떠한 것들인가? 전반적인 거주이동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등의 거주이동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개입기반 및 정책결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노인이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문제들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노력들이야말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I.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선행연구

이주(移住)의 사전적인 의미는 ①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②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주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정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특정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을 말하며, 한 나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동현상을 국내이주(Domestic Migration)라고 한다.

인간은 일생동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일정한 물리적 개념이 내포되어 이동(mobility) 또는 이주(migration)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출발지로부터 목적지로의 영구적 내지 반영구적인 거주지의 변경으로 정의된다(유경문, 1990; Clark & Davis, 1990)). 이러한 정의에는 지역 간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며, 이동행위는 임시적이 아니고 근본적이어야 한다는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특정의 경계지역을 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 거주함을 인구이동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라는 용어와 함께 인구 이동, 거주지 이동, 이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모두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저소득 여성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므로 노인의 주거이동에 관한 연구로 살펴보았다. 노인의 이주와 관련한 특성으로는 으로는 개인적 특성,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서승희 · 이경희, 1996) 혹은 경제적 특성, 가정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Burkhouse & Butrica, 1995).

우선, 노인의 거주이동과 개인적 특성으로는 건강상태, 성별, 결혼 상태와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성별과 주거이동을 살펴보면, 노동자 계층에게 강제이주가 있을 후 여자의 46%와 남자의 38%가 심각한 정서불안 상태를 경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Fried, 1963). 서승희와 이경희(1996)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거주이동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노인의 심리적 우울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거주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우울감의 변화는 새로운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으로 주거이동을 할 경우에 새로운 거주환경에 잘 적응할 수 없는 불안, 짜증, 분노, 우울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가족 간의 친밀감도 낮아져 사회참

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고 보고된다. 노인의 결혼 상태와 배우자 유무는 주거이동 후 노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유배우 노인이 홀로된 노인보다 정신적 질환, 자살률, 및 사망률은 낮으며, 사회심리적 적응도나 생활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상실은 사건 자체로의 충격도 크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박탈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감소,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 감 등으로 거주 이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서승희·이경희, 1996).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은 거주이동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된다(George, 1980). Baily(1987)는 거주이동 시기에 노인의 건강이 좋았다면 이동 후에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거주이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밝힌 Kasteler, Gray, & Garuth(1968)는 주거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유의미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의 이주에 대해 최진아(2001)는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주거 이동율을 보이며, 연령의 증가는 거주이동에 있어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노인이 신체적인 활동의 저하와 한 곳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족 및 친척, 친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양의 정도는 거주이동 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다(서승희·이경희, 1996). 노인의 부양은 크게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나누어진다. 사적 부양은 다시 가족부양과 자기부양의 형태로 구분된다. 자기 부양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며, 가족부양은 자녀들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 형태이다. 노인의 거주지 이동과 관련한 관계적 요인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주체의 부양의식의 약화와 함께 자기부양이 관련되어 있다.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부양의 유형은 첫째, 자녀와 동거하는 상태에서 부양을 받는 경우, 둘째, 독립된 노인세대를 구성하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셋째, 시설 환경에 수용된 상태에서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최영석, 2012). 산업 사회에서는 인구이동, 직업의 분업화 등의 요인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 가족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 예상되며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반면, 핵가족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노인들이 가족 내에서 높은 지위와 권위를 누리며 장남과 동거하고 있었으나, 장남부부와 동거하던 기존의 관습이 최근 급격히 붕괴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노인 부양의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노부부 또는 독신노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최진아, 2001).

민주홍과 한경혜(2007)는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노인의 사회관계망 변화와 적응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관계망 변화와 적응모습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거주지 이전 후에도 예전의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지유형,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서 만난 이웃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재편한 획득유형, 마지막으로 거주지 이전 후 예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관계망의 크기가 줄어든 축소유형 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축소유형은 거주지 이전을 경험하면서 예전에 비해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유형인데, 이럴 경우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선행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Saito, Lee & Kai, 2007).

Carp(1977)는 거주이동 후 노인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수준이 높을수록 구거이동으로 인한 충격이 적어지고 적응력이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의 빈곤문제는 노인문제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며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사회 참여를 통한 자존감 증진 및 역할 유지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년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직장에서 은퇴시키고 젊은이를 새롭게 직장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정년제는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노인부양이 공적인 노인부양으로 이행하는 과도적인 오늘날, 노인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적인 노인부양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부양해 오던 사적 부양체계도 허물어지고 자녀의 부양의식과 노인이 된 아버지의 부양기대 차이로 말미암아 노인의 삶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물질적 빈곤과 박탈이 노인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에 있어서 인간관계 혹은 인간교류는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조건이다. 삼 세대 동거, 인근 거주는 그 하나이지만 옛날부터의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정철모, 2000).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주거이동으로 인한 노인의 충격을 중재하고 적응력을 높인다고 보고된다(서승희·이경희, 1996). Struyk & Soldo(1980)는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친구, 친지 및 친척들과 자주 어울리고 접촉할 수 있을 때 생의 보람을 더 느끼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거주 이동에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의 역할을 한다. 주거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이동자들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Kasteler et al., 1968).

다음으로, 노인의 거주 이동과 관련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좋은 이웃과의 만남, 공해 없는 쾌적한 환경, 저렴한 물가, 낮은 주거비용, 사회적 기반에의 접근용이성, 민간·공적인 지원 등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다(Mesch & Manor, 1998). 또한 이러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Wardward et al., 1974). 지역사회에 시설이용의 편리성이나 서비스 질적 수준 역시 주거이전 후 노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용이성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Mesch & Manor, 1998). Newman(1986) 역시 주거 외부의 서비스시설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교통시설, 오락시설, 구매시설, 의료시설 등의 인접성과 질적 수준이 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서비스시설이 주거지에 가까이 위치하지 않으면 노인이 주거만족도가 떨어지지만 만약 편리한 교통시설이 있다면 노인은 사회적 참여와 접촉의 기회를 갖게 되어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해준다는 것이다.

노인 거주이동 경험의 한 축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 공공적인 지원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적용기준과 지급 금액이 동일하지만, 예전에 시행되었던 노인교통수당(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라 현재 폐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연령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연령이 낮을 때 교통수당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로 노인이 거주지를 옮겨 가는 옷지 못 할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사례가 있었음을 볼 때, 공적인 지원내용이 노인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인수(1995)에 의하면, 노인층이 낮은 거주이동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도시로 이동하는 젊은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읍·면에서 도시로 승격하는 지역증가, 및 일용직 돈벌이를 위해 노부부가 함께 도시로 이주하는 것 등이 노인인구의 도시화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의 이주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노인일수록, 노인 1인가구가 아닐수록,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할수록, 소음이나 공해 등 주변 환경이 좋을수록, 그리고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도시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게 되었을 때는 건강하지 않을수록 도시적인 생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노인의 경우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여성노인의 이주경험과 관련된 심층 면접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 거주지 이전이 가지는 의미를 생생하고 의미 있게 탐색하고자 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보기 어려운 개인의 의식변화와 같은 내면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Mile & Huber, 1994).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은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노인을 통해, 노인의 거주지 이동을 발생시키는 동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접근방식 가운데 지오르기(Giorgi)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대상자가 진술한 언어를 글대로 기술하고 기술한 내용을 학문적 용어로 전화시켜 그에 따른 의미구조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즉, 녹음된 테이프를 들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읽으며,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성찰하고 각각의 텍스트 속에 있는 의미단위들을 파악한다. 그리고 각각의 텍스트에 있는 개별적 의미단위와 관련된 진술을 묶어 재기술하고, 모든 텍스트 전체에 걸쳐서 각 의미에 관해 직관적으로 성찰하고 핵심주제를 파악한다. 이어 불변의 주제를 명시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담화를 기술하고, 참여자들과 동료들로부터 유효성을 확인한 뒤 발견한 것을 종합하여 서술한다(신경림, 2001, 재인용).

선행연구들(민주홍·한경혜, 2001; 서승희·이경희, 1996; Clark & Davis, 1990; Fokkema & Gerveld, 1999; Mogan & Palmer, 1997)을 토대로 저소득 여성 노인들이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질문들이 작성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포함한 본 연구의 질문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거주이동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갈등상황은 어떠한 것들인가? ② 전반적인 거주이동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이 밖에 저소득 여성노인의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가족, 친구나 친척 관계 등에 관한 부수적인 질문들이 추가되었다

2. 연구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는 면접일 현재 마산시¹⁾에 거주하고 있으며, 마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지 5년 이내인 65세 이상의 저소득 여성노인으로 선정하였다²⁾. 저소득의 기준으로는 정부·민간·자녀 등 외부로부터 보조와 본인의 수입을 합한 금액이 월 50만 원 이하로 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관련 시설 등을 방문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가족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해당 가정을 연상할만한 것은 아무 것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대담내용의 필기나 녹음에 대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다. 면담 초기에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자료수집 절차에 있어서, 심층면접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1인당 평균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때 모든 참여자와 추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재차 방문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편안한 참여를 위해 친밀감과 신뢰감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면접은 참여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였고, 진솔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참여자의 집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녹음은 컴퓨터에 저장한 뒤 녹취하였고, 녹취 후 녹음테이프는 폐기하였으며, 문서자료는 복사를 하지 않고 연구 분석을 위해 사용 후 반환하였다.

1) 경상남도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 비교해볼 때 인구가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마산시는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창원, 구미 등과 더불어 신산업도시에 포함되므로 인구이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다른 지역에서 마산시로 이사한 지 5년 이내로 참여자를 제한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이 마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주 동기를 통해 노인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문제점과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연구참여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므로 거주지를 이동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사하기 전의 상태를 회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세)	가족관계 (자녀)	출생지 (기간)	이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마산시 거주기간(년)	거주형태	생활비 조달방법
사례 1	81	사별 (1남1녀)	울산 (20년)	부산(50년)	1.7	단독거주 (월세 10만원)	정부지원 (수급자)
사례 2	92	사별 (없음)	포항 (18년)	부산(60년)	1	단독거주 (월세 15만원)	정부지원 (수급자)
사례 3	70	이혼 (1남)	마산 (21년)	인천(39년)	1	언니 집 단독거주 (전세 3000만원)	정부지원 (수급자)
사례 4	79	사별 (2남1녀)	전주 (13년)	마산(24년) 서울(7년)	3	단독거주 (월세 30만원)	자녀보조 (월15만원) 정부지원 (노령연금)
사례 5	84	배우자 (요양원) (3남)	마산 (30년)	부산(50년) 김해(3년)	1.2	동생집 셋째아들과 동거 중 (전세 3700만원)	정부지원 (수급자)
사례 6	80	사별 (2남)	울산 (19년)	마산(15년) 창원(3년)	4	단독거주 공공임대 주택	정부지원 (수급자)
사례 7	69	사별 (3남1녀)	대구 (21년)	사북(34년) 창원(5개월)	2	단독거주 (전세 1000만원)	자녀보조 (월30만원) 정부지원 (노령연금)
사례 8	84	사별 (1남-양자)	울산 (22년)	부산(50년)	1.2	단독거주 무료임대 (병원 입원 중)	정부지원 (기초노령 연금)

본 연구대상자 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인이었다. 1인은 조카가 친아들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2인은 자녀로 부터 월 15만원에서 30만원의 지원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여 모두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전 거주지나 전 전 거주지에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삶의 큰 변화가 없으면 이동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가 현재 거주지로 이주를 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주과정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병원에 입원중인 사례 8 할머니를 제외한 7인의 노인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식사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있고, 정부나 주위

이웃이 물질적·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 동거를 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생활의 주체가 되어 홀로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장애인인 아들과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장애인 아들을 노인 자신이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입장으로, 연구대상자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대부분은 전 거주지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은 후 이주를 하였고 이전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고 삶이 힘들고 궁핍하며, 대부분 정부나 민간의 지원에 의지(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자원봉사 등)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살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슬픔과 분노와 자책감에 목이 메이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식사준비, 일상적인 청소, 빨래 등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고 간혹 이불이나 담요 같은 큰 빨래는 이웃에 있는 자녀(딸)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표 2. 핵심범주와 하위범주

핵심 범주		하위 범주
거주이동	관계적 차원	약화된 부양의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든든한 자녀에게 의지함
		집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 맺기
경험	경제적 차원	경제적 갈등: 잃어버린 희망
	환경적 차원	저렴한 주거비용, 물가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원래 인터뷰 대상자는 9명이었으나 자료 검토 결과, 자료의 상태와 이용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어 한 명의 사례는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8명의 사례만 분석할 수 있었다. 인터뷰자료의 분석은 8명의 저소득 여성노인에 대한 개별 인터뷰 결과에 대해 지오르기(Giorgi)식 방식으로 반복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자료를 분석하여 범주화를 시도한 결과, 약화된 부양의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든든한 자녀에게 의지함, 집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 맺기(관계

적 차원), 경제적 갈등: 잃어버린 희망(경제적 차원), 저렴한 주거비용과 물가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환경적 차원) 등 총 7개의 하위범주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 7개의 하위범주들은 다시 관계적 차원,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등의 3가지 핵심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3.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자가 가능한 한 분명하게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분석에 포함된 자료들과 분석결과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 가족 전문가와 동료들로부터 질적 분석과 해석에 관한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은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심층면담 시 연구목적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을 경우 1회 내지 2회에 걸쳐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관찰, 심층면접, 문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의 확인가능성은 다른 연구자들과의 의견교환이나 연구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접촉들 통하여 자신이 연구에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확보된다. 이러한 연구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구자의 선이해를 미리 제시하고, 동료연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연구자의 편향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향성에 의해 연구결과가 영향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성해 갔다.

IV. 저소득 여성 노인의 거주이동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관계적 차원,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등 세 가지 핵심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관계적 차원에는 약화된 부양의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 맺기, 든든한 자녀에게 의지함 등 4가지 하위범주들이 포함되었다.

1. 관계적 차원

본 연구에서 관계란 가족, 친구, 진지, 이웃과의 관계형성이나 친밀감 유지 및 형성과 연관되는 것이다. 가족 및 친척, 친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양의 정도는 만족스런 노년기를 맞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주거이동 후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계적 차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주거이동 후에 자녀, 다른 가족성원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때(사례 4, 사례 6, 사례 7), 안정적이고 만족감을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관계 속에서(사례 1, 사례 2, 사례 8), 서운함과 분노를 표출함을 알 수 있어 선행연구(Watson, 1980)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사회관계망은 대체적으로 민주홍·한혜경(2007)의 연구에서 소개한 축소유형에 속한다고 여겨진다. 이는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이고 여성노인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가. 약화된 부양의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노인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인 이유로는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의 부양의식의 약화와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 과거의 씨족사회에서는 자활불능자에 대한 부양이 주로 씨족집단의 책임에 속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 부양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후 국가가 성립되고 가족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생활불능자에 대한 부양은 가족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이동, 직업의 분업화

등의 요인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났고 앞으로 가족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 예상되며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반면, 핵가족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에 의하면,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 중 부모의 노후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같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2008년 43.6%로, 가족(40.7%)이라는 의견을 앞질렀으며, 2006년과 비교하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22.7% 포인트 감소하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17.2% 포인트 증가하였다. 가족이 돌보아야 할 경우에도 장남(만머느리) 또는 아들(며느리)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줄고, 모든 자녀가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듯 힘들여 키운 자식이 노후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는 노인의 기대와 달리 노부모 부양을 굴레라고 생각하는 자식 간의 의식 차이와 새 식구로 맞아들인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와 갈등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이다. 사례 4의 경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남편과 함께 하우스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며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연구참여자 몰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가버리고, 혼자서 자녀 3명을 힘들게 키웠으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큰아들은 노모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서울에서 같이 살자던 작은 아들(며느리)은 손자의 양육이 끝나갈 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치를 자꾸 주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를 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타인이 알면 자식에게 해(害)가 될까봐 걱정하며 자신의 불이익은 감수하려는 모정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 영감이 바람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어예. 영감쟁이 이야기는 하기도 싫다... 그래 영감죽고, 우리 둘째 머스마가 “엄마 내하고 삼시다” 하고 하도 졸라서 내가 서울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도 그리 싫어하는 눈치도 아니고 해서 갔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맞벌이를 하거든예. 서울에는 뭐 알라 봐 주고 살림까지 살아 주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데예. 그러니까 나를 살림도 살고 저거 알라도 봐 줄 겸해서 불러 올린거지. 그냥 식모처럼 그래예.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저럭 손자들도 좀 크고 해서 조금 쉴 만하니까,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보는 눈이 조금 이상하데예. 내가 촌 할마시가 돼서 사투리를 써서 그런지 못 배워서 저거 아이들한테 뭐 하나도 못 가르쳐 줘서 교육상 안 좋다고 그러는지 슬슬 거리를 두데? 나도 눈치는 있거든...(분

노가 일어나는 표정) 손자들이 커가니까, 방도 따로 줘야 되는 모양이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거든. 그래 우리 며느리 눈치가 내 방을 비워 줬으면 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손녀하고 같이 써도 될 것 같더만 거기 또 내 생각하고 틀리는 모양이데. 그래 그만 내려와 버렸어. 그때 잘 내려왔지 뭐. 내가 있어봤자 눈치밥 밖에 더 먹겠나?“(그래도 서운한 표정이 역력함)(사례 4)

나. 든든한 자녀에게 의지함

사례 4, 사례 6, 사례 7의 경우를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자녀가 있어서 틈틈이 보살펴 주며, 이웃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주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사례 4의 경우, 마산에 온 이후 다른 곳에 거주하던 딸이 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딸의 보살핌을 많이 받고 있다. 처음에는 전셋집에서 살았으나 우연히 중풍이 오는 바람에 병원치료비에 전세금을 모두 없애고 현재의 주거지에 월세로 살고 있다. 방세는 매달 딸이 지원해 주고, 기초노령연금과 작은 아들이 보내주는 약간의 보조로 생활하고 있다. 마산에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본인이 어렵게 사니까 친구들한테도 마음이 잘 안 열려서 만나지 않는다. 고령이지만 스스로 신문도 읽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숫자 계산에도 밝고 정신이 또렷하며 공부를 많이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고, 특히 옆에서 늘 보살펴 주는 딸이 고맙기 그지 없다. 그래서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은 없다.

사례 1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산에서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였는데 재개발로 인하여 기존에 살고 있던 아파트가 철거당할 예정이고, 부산의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는 바람에 갈 곳이 없던 차에 재혼을 하게 된 딸이 옆으로 오라고 해서 이주를 하게 된 경우이다.

“내가 부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내가 살던 집 조그마한 아파트였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집이 뜯긴다고 해서 나와야된다 아깝니까, 그래 내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여기에 우리 딸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내 고향인거라. 잊고 살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고향 생각이 새록새록 나긴하더라고 우리 딸이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나를 보고 지가 살던 이 방에 와서 살라고 하데요 지도 내 보러 오기도 가깝고 방세에 비하면 괜찮다고 두말 안하고 좋다고 했지요”(사례 1)

“우리 딸이 나를 병원에 늘 데리고 다니고, 지도 돈 많이 썼을 기라요 지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딸한테 많이 미안해요. 공부도 많이 못 시켰는데... 그래도 착해서 신앙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우리 사위, 사람이 참 좋아요(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여기 방세가 한 달에 십 오 만원. 그래도 방이 두칸데 그런 거 보면 이 방이 싼 방이다. 방세는 우리 딸이 주고 그래요. 우리 딸이 한 번씩 반찬도 갖다 주고 그냥 빨래는 내가 하지만 큰 빨래 같은 거. 이불이야 담요 이런 거는 지가 한 번씩 해다 주고 그래요. 우리 딸이 고맙지 뭐.”(사례 4)

다. 짐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사례 2의 경우, 조카가 직장관계로 다시 창원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또 홀로 남게 되어 허전한 마음이 없지 않으며, 조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나 창원의 비싼 방세와 기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조카가 여기 옆에 있었는데 그만 창원으로 방을 얻어 가버렸어. 저거 아니면 내가 부산서 안 왔을 건데... 그래 저리 창원으로 가 버리고 나니, 처음에는 많이 서운하데요. 그래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가봐. 이제는 조금 낫다. 저거는 자주 옆으로 또 오라고 하지만 내가 저거 옆으로 가면 아무래도 저거가 마음이 안 편할 거 아니냐, 저거가 내 방 얻어 줄 형편도 안 되고, 나도 돈도 없고...”(그래도 조카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역력하다) “자식? 요새 그거 뭐 있으모 뭐하노? 있어 보니 요새 안 그렇더냐. 이거 뭐 세상에 할마시들 아프다고 병원에다 쳐 넣어놓고 한 번씩 얼굴이나 빼죽 들이 밀고 뭐. 저거가 물을 갖다 줄 건가 뭐를 건네 줄 건가. 차타고 획 왔다가 가고...(노부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뭐 아무 필요 없다. 아무도 없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어느 자식이 있어서 성가시게 해서 걱정이야, 내 몸 하나 안 아프고 자는 잠에 가는 그기 최고지 뭐.”(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말투)(사례 2)

사례 8의 경우, 전 거주지인 부산에는 또 다른 여동생이 있으나 옆에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노환으로 몸이 아파(5년 전에 넘어져서 갈비뼈 세 개가 없어서 등이 많이 굽은 상태임)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들고, 무엇보다 여동생을 피해 양로원 등에 입소하여 여생을 보내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다.

“여기는 살기가 힘들어요. 부산에는 내가 오래 살아봤지만 만원가지고 시장을 가면 며칠을 장을 바다 먹어요. 여기는 그게 아니데요. 뭐만 사다하면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원이래요. 만원을 가지고 가니까 혼자라도 그리 되데요. 내가 어시장 거기를 가져든. 영 살기가 안 좋데요. 영 살기가 안 좋아요. 비쌌니다. 진짜 비싸데요. 나 같은 거는 여기서 살지도 못 하겠대요. 부산 거기는 내가 살아봤지만, 풀랑 연금 그거 나오느거 가지고 안 살았습니까. 그거를 쪼개 쓰면, 그거 가지고 시장을 몇 번 봐 먹습니다. 만원을 가지고 시장을 몇 번 봐 먹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조기고 갈치고 작은 거 사서 지져먹고 구워먹고, 여기서는 거기 아닙니다. 없는 사람 살기가 영 힘들어요.(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한 표정임) 나는 여기서 나가면 어디라도 잠자고 연어먹는 그런 곳, 양로원 같은 곳에 넣어주면 갈라고 합니다. 하도 설움을 많이 받아서...”(눈물을 흘림)
(사례 8)

노인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 거주지에서의 생활과 현재의 거주지에서의 생활을 비교하게 되면서 정착을 하여 계속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재이주를 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정착과 재이주 사이에는 단정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 고민하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 곳에서 생활을 그리워하며 현 거주지의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 거주지의 생활보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나빠져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현재의 주거생활에 다소 만족을 하고 있는 사례 3의 경우에도 현재 마산시의 도시 기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일가친척이 옆에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이며, 전 거주지인 인천에서의 사회적인 지원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현재 거주지에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릴 때 두고 나온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간직하고 있는 상태

이므로 아들이 불러만 준다면 언제든지 아들 옆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재이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 거주지에서의 정착과 부작용 및 재이주의 문제 역시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의 이주 동기에 미치는 요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삶에 있어 거주지 이동을 경험하는 문제는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다기보다 우리 모두 풀어나가야 하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봐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와 달리 노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문제가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으며,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라.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를 찾아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났거나 오랜 기간 살았던 곳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옛말에 “여우도 죽을 때는 태어난 언덕 쪽으로 머리를 돌리거늘, 어찌하여 고향을 잊을 손가 ---狐死歸首丘 故鄉安可忘”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향이나 일가 친척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더 간절해진다. 본 연구 참여 노인의 거주이동 경험을 살펴 보면 필요 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일가친척을 찾아서라고 말하는 노인이 8명 중 4명에 해당하였다. 물론, 고향을 찾아 일가친척 옆에 있고 싶어서 이주를 한다고 해서 현재의 삶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옆에 있음으로 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갈등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외롭게 홀로 지내는 것보다는 일가 피붙이와 정을 나누는 삶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사례 3의 경우를 살펴보면, 결혼 후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남편과 뜻이 맞지 않아 일곱 살배기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왔으며, 인천에서 여관종업원, 음악다방 운영을 하면서 집도 마련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나, 몸이 아프게 되자 형제들이 생각나고, 죽어도 형제들 옆에 가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인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왔으며, 언니 집 2층에 전세 3,000만원에 살고 있다.

“내가 인천에서 오래 살았는데, 음악다방을 하다가, 정부에서 다방허가를 아무나 다 내어주니까 다방 값이 반 토막이 나서 할 수 없이 팔고, 빚을 갚고 했는데, 나이가 드니

까 피붙이 옆으로 오고 싶더라고 마산에 형제간이 있거든.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언니하고 동생하고 내 죽었다고 치우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라리 죽을 내가 근처로 가는 게 낫지 싶어서 집을 팔고 여기로 왔어(천식으로 인하여 숨이 차서 대화하는데 힘들어함). 받는 돈에 차이가 많아도,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 여기는 외롭지는 않아. 인천에는 친구는 많아도 객지 친구들은 좀 그렇잖아. 마음 졸 사람도 별로 없고 마음을 쥐 봤자 그렇더라고. 내가 친구들한테 돈도 많이 떼었다. 객지서 만난 친구는 친구가 아니더라. 아쉬워서 빌려갔으면 나 같으면 돌려 줄건 데 안 주더라고. 여기가 고향이고 옆에 언니가 있으니까 외롭지가 않아”(사례 3)

노인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안에는 따뜻한 인간관계의 정이나 그리움이 새겨있음을 알 수 있다. 친인척들과 인근 거주도 그 하나이지만 옛날부터의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들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 차원에서 중요할 것이다. 관계적 차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주거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더 느낀다고 밝힌 Kasteler 외(196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이동 노인에 대한 지지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제적 차원

노인의 경제적인 상태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더 높은 질의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므로 주거이동 후의 노인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승희·이경희, 1996; George, 1980; Watson, 1980).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던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이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주 후에도 원통함, 분함에 눈물로 시간을 보내거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상황에 처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제적 차원에는 경제적 갈등: 잃어버린 희망이라는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노인의 빈곤문제는 노인문제 중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며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사회 참여를 통한 자존감 증진 및 역할 유지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은 노년기 이전의 생애과정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 어떤 여성들은 노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빈곤하

게 된다(최희경, 2005; Choudhury, 1997). 또한 대다수 빈곤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미약한 노동력, 결혼의 불안정성, 재산 형성기회의 결여, 노년기 사회보장 급여의 미약 등과 연관된다(석재은 외, 2003).

본 연구의 참여자인 여성 노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고, 자녀 양육과 노후를 대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해체와 함께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곤의 원인은 노인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녀, 형제, 친척 등의 주변인으로 인하여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남편이나 자녀의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 청산,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넘어지면 다른 쪽도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친인척 등 주변사람과 같이 빈곤해지기 때문에 가족해체와 함께 예전의 여유롭고 넉넉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특징이 있었다.

가. 경제적 갈등: 잃어버린 희망

사례 6은 오랜 기간 부잣집의 가사도우미로 모은 돈을 자녀의 사업 실패로 모두 탕진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이다. 딸은 사망하고 큰 아들은 집을 나가 소식을 알 수 없으며 작은 아들은 대장암 치료차 요양원에 가 있는 등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진 돈이 없어 전 거주지인 창원에서 지낼 수가 없어, 친구가 얻어준 월 10 만 원짜리 방을 찾아 마산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내가 알맞게 돼 가지고 창원에서 삼년 살다가 이사를 나와 버렸다. 창원서는 식구가 제법 많았습니다. 거기 살 때는 큰 아들도 있었고, 작은 것도 다른 데 나가 있었고, 살다가 좀 알맞게 돼 가지고 뿔뿔이 헤어져 버렸다. 내가 남의 집 살이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동안 번 돈은 자식들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다 날려버리고. 그래 뭐 돈이 있어야 방을 얻지. 창원은 방세가 얼마나 비싸노. 그래 마산에 10 만 원짜리 월세 방이 있다고, 우리 친구가 방을 얻어줘서 이사를 왔어. 나는야 살아온 거를 말하면 이런 책으로 몇 권씩 만들어도 만든다. 내 과거를 전부 그걸 어찌 다 말로 하겠노? (목이 메이고 눈물 흘림).(사례 6)

사례 7의 연구참여자는 10여년의 식당 운영으로 재산을 꽤 모았으나 큰 아들은 지병으로 사망하고 작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청산에 그 동안 모아 두었던 돈을 모두 없애고, 막내아들이 보내 주는 월 30만원과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식당을 그만둔 뒤 잠시 창원에서 살기도 하였으나, 우연히 사별한 남편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게 된 후로 그 집에서 살기 싫어 다시 마산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우리 작은 머스마가 공장을 인수하고 3개월인가 4 개월 만에 철(鐵)값이 많이 올랐는데, 큰 회사에 1년으로 계약을 해 놓으니까 그 회사에서 물건 값은 안 올려주지, 재료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공장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이리 산다.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넣고 자식들 신세 안 질려고 내 댄에는 안 쓰고 안 먹고, 노후 준비한다고 했는데… 내가 평소에 남편한테는 뭐라고 했냐 하면 “자식들 돈 다 주지 마라, 절대로 자식들한테 돈 다 주지 마라”하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내한테 닥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큰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 2003년, 2004년에 마산에 있는 공장에 부도가 많이 나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어쩐다 소리가 들리니까 아무 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저 머스마가 혹시 마음을 잘 못 먹으면 어쩌나 싶어 앞이 캄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보험이고 적금이고 전부 다 털어서 빚잔치를 하고 내가 이래 살아요(눈가에 눈물이 맺힘).(사례 7)

먼저 사례 5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 전 거주지인 부산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남편의 사업 번창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녀 또한 수산 냉동 공장 등 여러 사업체 운영 등을 통해 큰돈을 모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친척에게 백지수표를 빌려준 후 연쇄적으로 발생한 남편 사업체 부도와 작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불운(이혼·교통사고 사망)과 함께 이혼한 작은 며느리가 아들의 전 재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가버리고, 큰 아들은 작은 아들 사업 보증에 따른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등 일시에 전 가족이 극빈층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치매기가 있어 E할머니를 보기 싫다며 자꾸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장애인인 막내아들과 김해(장유)로 이사를 가 있던 중에 여동생의 감언이설에 속아 4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여동생이 집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혹시 본인 몰래 집을 팔면 어떡하나 싶어 할 수 없이

장애자인 막내아들과 함께 현재의 장소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자 한 푼 받지 못하고, 동생은 돈 값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영영 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생 딸이 인자 서울에 식당을 인수를 하면서 인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천만원 또 이천만원주고 십육 년 전인데. 이력저력 천만 원 받고 오백만원 받고 해 가지고 남은 게 이천 오백 만원인데, 땅이 이기 팔리모 준다고 하는데 내 없을 때 팔리모 내가 몰라서 그 돈 못 받음도 우짚꼬 싶어서 그래 내 한 일 년만 고생하지하고 왔는데 도저히 우리 생활하고 영 틀리는기라. 뭐 그래 내 일 년만 고생하모 이왕에 말이 난거 안하겠나 싶어서 그래 덜렁 왔더마는 평생 이런 데는 살아 보는 것도 첨이고예 고생이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둘째가 크게 움직였는데 수산생동하고 가공공장도 하고 이랬는데, 여자가 조금 바람기가 있어서 갈라섰어요. 그런데 어느 놈이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갔어요(눈에 눈물이 맺힘). 손녀가 하나 있는데, 미성년자가 돼서 이혼을 해도 본처가 와서, 아 어마이가 와서 돈하고 전부 빼가지고, 삼십억도 넘는 걸 다 빼가지고 다 갖고 가 버렸어요(한숨을 쉬) 우리 큰아들은 저거 동생 사업하는데 은행보증을 썼는데, 저거 동생이 죽어 놓으니 그 빚을 다 안고, 그래 불량자가 돼 가지고 생활 보호대상자로 있어요. 우리 며느리는 싹 빼가지고 가고, 한 오십억은 빼갔을끼다. 서울서 잘 산다고 하데.”(분노가 차오르는 표정)(사례 5)

3. 환경적 차원

저소득 여성 노인들의 거주이동 경험 가운데 환경적 차원으로는 저렴한 주거비용, 물가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이 포함되었다. 물리적 환경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뿐만 아니라 그것의 이웃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환경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주지에서 정착해야하기 때문에 이주 후 주거환경의 특성은 노인의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군다나 친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거주지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은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변화이기 때문이다. 사례 6과 사례 7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환경적 요인 중 저렴한 물가, 사회적 기반에의 접근용이

성, 민간·공적인 지원, 재가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용이성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Mesch & Manor, 1998).

가. 저렴한 주거비용과 물가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사례 6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정부지원금 30 여만 원으로 살고 있다. 운이 좋게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아파트)에 입주할 하게 되어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까지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쾌적한 자연환경, 시장과의 접근성, 근거리에 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현 주거지에서 살 생각을 갖고 있다.

“창원은 좀 그렇데, 살기가 좀 뻑뻑하고 정이 좀 없는 거 같애. 우리 저 밑에 시장이 서는데 뭐 사먹기는 참 좋습니다. 그 중에도 또 싼 집이 있어, 총각집이 있거든. 이 시금치도 이 천 원 줬다(시금치를 싸게 사서 즐거운 표정). 나는 콩나물 오백원어치만 사도 실컷 먹어요. 여기는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콩나물도 오 백 원 어치를 줘요. 창원 같은 데는 오 백 원 어치 달라고 하면 큰 일 납니다. “오백원어치가 어디 있노?”하면서. 거기 천원어치가 여기 오백원어치보다 작게 줘요. 창원보다 여기가 살기 좋아요. 창원은 시장이 멀어서 뭐 좀 싼 거 사 먹기도 힘들고 물가도 여기보다 비싼 거 같아요. 창원은 있는 사람들 사는 곳이지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좀 그렇데요. 복지관도 가까운 데 있어서 자주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사례 6)

사례 7은 그동안 본인이 직접 노력한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자식에게 생활비 받아쓰기가 많이 미안함을 언급하고 있다. 남편 없이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 큰며느리·손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이며,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한번 아프기 시작한 다리로 인하여 외부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이 근처에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직은 인정이 있고 방세도 저렴(전세 1000만원)하여 어려운 사람이 살기에 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다른 곳으로 재이주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너무 요새는 들어 앉아 있으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내가 조금만 건강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보태줄텐데... 어떤 때는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순간 분노의 감정이 얼굴을 스친다) 이래 살라고 내 그리 발버둥쳤나? 내 계획은 돈 좀 모아놓고 나이 먹어가지고 살살 놀러 다니고...생활 할라고 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참 서글퍼. 그나마 생활비가 덜 들어가니까.”(억울함과 상실감이 얼굴에 교차한다) (사례 7)

나.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대체적으로 현재 거주지보다 도시의 규모가 큰 부산, 김해에서 이주를 한 경우에 현재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며 재이주를 강하게 희망하였는데(사례1, 사례 5), 그 이유로는 지하철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부재로 인한 교통비 지출 부담과 정부·민간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품의 차이를 꼽고 있었다. 이것은 노인의 경우에도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시설이나 지지기반이 잘 구축된 대도시로 노인이 이동을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노인일수록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하겠다.

“부산에는 지하철이 있으니까 차비가 안 듭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차비를 안 받으니까. 여기는 온갖 게 다 불편하지요 여기서는 부산에 한번 갈라고 하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지예. 또 부산가는 버스 타야 되지예. 부산에는 내리면 저 지하철 타고 몇 구역이라도 그냥 타요 여기는 교통이 참 불편하다. 부산에서는 우리는 전차만 타면 그저 다닌다 아닌교 서면으로 동래로 어디라도 다 그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든 차비를 내야 된다 아닙니까. 부산에는 있으면 복지관이고 뭐 어디고 반찬이고 옷 같은 거 갖다 주고 안경도 다 맞춰줍니다. 여기 오니까 적막강산이라. 그래서 내가 동에 한번 가 봤 심 더. “와 여기는 뭐 같은 거도 아무것도 안 주노? 쌀 같은 것도 좀 주모 안 좋냐”이러니까 “할때요 부산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줘도 여기는 기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 통 못 줍니다”. “아 그렇냐?”하고 내가 두 말도 안 하고 와 버렸심 더”.(서운한 표정) (사례 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타 지역에서 마산시로 거주지를 옮겨 살고 있는 저소득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 이동 경험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즉, 저소득 여성노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탐색해 보았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조건을 가진 8명의 노인을 선정하여 4개월간에 걸친 면담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계적 차원-악화된 부양양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든든한 자녀에게 의지함, 짐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 맺기, 경제적 차원 - 경제적 갈등: 잃어버린 희망, 환경적 차원-저렴한 주거비용과 물가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총 3개의 핵심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들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거주이동은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 자녀의 부양포기, 혈연관계와의 동거 등 어쩔 수 없는 거주이동이 많았다. 노년기 오랫동안 살아온 집은 친근한 마음이 들어 정신적으로 안정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노년기는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관계 역시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집이나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환경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생활 영역의 축소,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약화되는 시기이므로,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환경에 사회복지적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여겨진다. 연구참여자 8명 가운데 사례 6은 현 거주지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7명 중 전세 집에 살고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월세가 전체 소득(정부지원금)의 1/2~1/3을 차지하고 있어 생활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자신의 집이 없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은 이사 가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조그마한 방 한 칸이라도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본인 소유가 아니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김한호, 2011). 따라서 저소득 여성노인들이 본인이 원한다면 거주해온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재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액이 주거복지서비스로서의 현실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지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살아온 지역을 떠나 새 지역에 정착하려는 저소득 여성노인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고려한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가능하면 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 여성노인들의 주거이동 경험은 그들의 자녀, 친구 및 친지 등과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적 차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주거이동 경험에서 관계적 차원의 약화된 부양의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및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 맺기라는 하위범주들은 주거이동에 따른 저소득 여성노인들의 외로움과 불안 심리를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향에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은 자녀, 형제자매 등 일가친척 가까이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관계적 차원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주거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더 느낀다고 밝힌 Kasteler 외(196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거이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 주거이동 여성 노인에 대한 지지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노인이 주거이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잘 대처하려면 이웃에 비슷한 연배의 노인이 거주하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서승희·이경희(1996))를 참고하여 주거이동 저소득 여성노인에게 자매결연을 맺어주거나 이웃과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친교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셋째, 저소득 여성노인의 주거이동 경험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원의 경제적인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의 사업실패와 친척의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너무 커 가족 해체로 이어지고, 사회적인 지위 역시 한 순간에 낮아져 예전의 평범하고 안락했던 삶으로 되돌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이주를 하게 되는 저소득 여성노인은 대부분 기존의 주거지보다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이주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거주 환경이 이전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것과 의식주 문제를 자발적 해결이 아닌 민간이나 행정기관 등의 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연금 및 공적 부조, 주거급여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빈곤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주거문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계되고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환경적 차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저렴한 물가, 사회적 기반에의 접근용이성, 민간·공적인 지원, 재가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용이성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와(Mesch & Manor, 1998)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주거지역에서 보내는 노인에게 주거지역의 편의시설과 서비스시설의 수준은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전 경험에 대한 탐색이라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 여성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언을 해 본다면, 첫째, 경제적 문제로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을 갑자기 떠나야 하는 저소득 여성노인과 또한 어쩔 수 없이 살아온 지역을 떠나 새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 저소득 여성노인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외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도출되어야 한다. 소득이 미미한 저소득 여성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립과 공급의 확대가 한 가지 대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저소득 거주이동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다. 저소득 여성노인은 타지에서 홀로 되었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경제적 지원 외에도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안정감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나 친인척 등과 교류가 적은 지역사회 저소득 여성노인의 경우 지역복지관이나 노인관련기관들과 활용하여 정서적인 지지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로당 등을 통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집 주변에 경로당이 있으나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첫째, 기존 경로당 이용자들의 텃세와 둘째,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기적인 회비 모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셋째, 평범한 삶을 살아온 노인들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듣기 싫어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 자신들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타인과 원만한 관계 맺기가 힘든 탓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 시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 노인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경로당이 단지 시간을 소모하는 장소에 그친다는 인식을 버리고 유익한 정보

를 얻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동료애 형성, 소소한 일상에 대한 만족감 등을 공유하는 장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로당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가족관계 외에도 인간관계 맺기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부모자녀 간, 가족 간, 이웃 간 사회적 관계 맺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사회관계망 확충을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빈곤 여성 노인들의 이주 경험에 대하여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산시라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마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즉, 노인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개된 장소인 경로당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나, 그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한 노인이 대부분이었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노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며, 현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상 이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공개적인 대상자 선정에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연구대상자를 남성 노인에게도 확장시켜 남녀노인 간의 이주동기의 차별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닌 노인층의 이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중산층으로서 삶의 여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노인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여성 노인만을 연구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자원이 다른 노인층 간에 다양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앞으로 직장 은퇴 후 연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이 늘어날 것임을 감안할 때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하겠으며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경, 유병선(2011). 지역사회 내 노인의 주거이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pp.21-48.
- 김한호(2011). 노년기 생활공간의 경험과 의미.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
- 민주홍, 한경혜(2007).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노인의 사회관계망 변화와 적응. *한국노년학*, 27(4), pp.21-44.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가족부(2012).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집
- 서승희, 이경희(1996). 주거이동이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일산과 분당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6(1), pp.69-82.
- 석재은, 김용하, 김태완(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경립(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유경문(1990).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승권(2011). 노년기 주거이동과 주거환경 선택요인.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 이인수(1995).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서울: 일진사.
- 정철모(2000). 21세기를 향한 도시개발. 전주대학교출판부.
- 최영석(2012). 주거이동으로 인한 정주환경변화가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별내 신도시의 원주민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 최진아(2001). 노인주거 이주 및 입지 결정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최희경(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pp.147-174.
- 통계청(2000, 2004, 2010, 2013). <http://kostat.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ily, A. (1987). Satisfaction with housing relocation as expressed by elderly person. *Housing and Society*, 14(2), pp.161-166.
- Burkhause, R. V. & Butrica, B. A. (1995). Mobility Patterns of Older Homeowners. *Research on Aging*, 17(4), pp.23-40.
- Carp, F. M. (1974). Short-term and long-term prediction of adjustment to a new

- environment. *Journal of Gerontology*, 29(4), pp.444-453.
- Choudhury, S. (1997). Life Cycle Aspects of Poverty among Older Women. *Social Security Bulletin*. 60(2), pp.17-36.
- Clark, W. A. V. & Davis, S. (1990). Elderly Mobility and Mobility Outcomes. *Research on Aging*, 12(4), pp.44-62.
- Fokkema, T. & Gerveld, J. (1999). Big Cities, Big Problems: Reason for the Elderly to Move? *Urban Studies*, 33(2), pp.23-40.
- Fried, M. (1963). *Grieving for a lost home*. In L. J. Duhl(Ed.), *The urban condition*. pp.151-171. New York: Basic Books.
- George, L. K. (1980). *Role transition in later lif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Kasteler, M. K., Gray, R. M. & Garuth, M. L. (1968). Involuntary relocation of the elderly, *Gerontologist*, 8, pp.276-279.
- Lareau, L. S.(1982). Relocation of the elderly: A social context for stress. *Housing and Society*, 9(1), pp.3-11.
- Mesch, G. S. & Manor, O. (1998). Social Ties,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Local Attachment. *Environment & Behavior*, 30(4), pp.56-70.
- Miles, M.,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Sage Publications.
- Mogan, B. R. & Palmer, A. (1997). Moving from hospital into an care home: The nurse' role in supporting older peopl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6(6), pp.463-471.
- Oishi, S. (2010). The psychology of residential mobility: Implications for the self, social relationships and well-being. *Perspective on Psychological Science* 5(1), pp.5-21.
- Saito, T., Lee, H & Kai, I. (2007). Health and motivation of elderly relocation to suburban area in Japan.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5, pp.217-232.
- Wells, L. & McDonald, G. (1981). Interpersonal networks and post-relocation adjustment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The Gerontologist*, 21(2), pp.177-183.
- Watson, W. H. (1980). *Stress and Old Age*.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Book.

Woodward, H., Gingles R., & Woodward J. C. (1984). Loneliness and the elderly as related to housing. *The Gerontologist*, 14, pp.349-351.

하춘광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과 여성복지이며 현재 노인일자리와 여가 및 레저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hachkw@kyungnam.ac.kr)

김효순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과 가족복지이며 현재 사회적 기업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ner9657@sjcu.ac.kr)

An Exploratory Study on Low-Income Elderly Women's Residential Mobility Experiences: Focusing on Masan City

Ha, Choon-Kwang
(Kyungnam University)

Kim, Hyo-Soon
(Sejong Cyber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low-income elderly women's residential mobility experiences. The subjects were the eight low income female elderly people over 65 who had moved into Masan city from another area.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urned out that the major experiences of their residential mobility were three categories such as the relational dimension, economic dimension, environmental dimension and seven important categories like week consciousness of supporting depending on child, living alone, social relationship, economic conflicts, low housing expenses, easy access to welfare service, and lack of convenience facil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ought to give not only supportive strategies, but academic information and social intervention policies for low income elderly women's mobility.

Keywords: Low Income Female Elderly People, Residential Mobility Experienc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